

유교문화 전통연구에 관한 통합학문의 전망*

유 권 중 (중앙대)

주제분류 통합학문, 유교연구

주요어 에드워드 윌슨, 통섭, 근본적 구성주의, 움베르토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바레라, 윤리의 노하우 켄 윌버, 홀론, 홀라키, 진리의 4상한

요약문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 해당하는 유교의 특성과 장점을 통합학문으로써 조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 하에, 통합학문의 분야와 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이 유교 연구에 어떠한 미래적 전망을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적은 수이지만 세 가지 유형의 통합학문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관점과 방법론 내지 그것을 받쳐주는 이론적 가정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유교 연구에 어떠한 전망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통합학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생물학에 근거하여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지향하는 사회생물학 계열, 둘째 인지과학의 계열에 속하면서 근본적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학문 계열, 셋째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일컫는 켄 윌버에 의하여 주창되는 통합적 패러다임의 유형이다.

윌슨의 통섭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섭의 궁극적 지향이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지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통섭의 본질이라는 점, 서구의 계몽주의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여 인간의 삶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는 점,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을 통섭의 주축으로 삼는 점, 나아가서 생물학 내지는 물질과학의 지식을 근거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윤리적 지침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점을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유형은 유교 연구에 긍정적이라기보

* 이는 2007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조성된 논문임. 원래 이 논문은 2007년 아시아철학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다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다.

근본적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그 담론의 참여영역이나 학자들, 인식이란 자기 구성의 과정이자 그 표출이라는 견해, 앎에 대한 앎은 곧 인간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앎이자 윤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 생물학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깨달음에 근거하는 공존의 윤리를 제안하는 점 등의 내용과, 아울러 윤리적 행위의 본질은 윤리의 노하우라는 주장 등이 주요한 고찰 내용이다. 이 담론은 인간의 인지체계의 자기구성으로부터 사회 체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서구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의 전통적 지식 추구의 방법 가운데 칸트, 비코 등에 연원을 둔 구성주의적 사고를 더욱 철저히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관점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이 서구의 인문학적 관점에 의한 연구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유교의 특징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켄 윌버의 통합적 패러다임에서는 그 패러다임의 구조를 살피면서 인식의 3차원, 그것과 대응하는 3가지 안목, 홀론 내지 홀라키적 체계, 진리의 4상한, 전일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유교 연구와 관련하여 본다면, 몇 가지 긍정적 전망을 주는 점이 발견된다. 우선 그의 홀라키적 체계는 물질과학적 지식보다는 정신적 가치나 의미, 또는 도덕적 성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유교의 지향성을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는 관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홀라키적 체계는 유교라는 문화와 그 지적 창조물들을 어디다 위치시켜야 옳은가 하는 의문을 과제로 주고 있다. 아울러 그가 과학적 지식의 엄밀성처럼 종교의 진실 성취를 검증하는 방법의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적 진실의 객관화를 피하는 것은 유교 연구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특히 근본적 구성주의의 관점이나 켄 윌버의 통합적 패러다임은 표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양자 공히 궁극적으로는 근대 이후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 및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취해온 지적 전통 특히 철학과 윤리,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로부터 향후 인류가 취해야 할 개인적 집단적 삶(또는 행위)의 방향과 방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1. 서 언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 해당하는 유교의 특성과 장점을 통합학문으로써 조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 하에, 통합학문의 분야와 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이 유교 연구에 어떠한 미래적 전망을 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적 전망이란 현대인의 삶에 유교가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합학문의 방법으로써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과학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분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철학 혹은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등 기존의 분과된 학문이 한 영역에서 유교를 연구하던 방식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적은 수이지만 세 가지 유형의 통합학문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관점과 방법론 내지 그것을 받쳐주는 이론적 가정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유교 연구에 어떠한 전망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어떠한 유형의 통합학문이 유교 연구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느 유형의 통합학문의 관점과 방법이 어떠한 진전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탐구의 초점이 된다.

통합학문이 유교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동기로서 중요한 것은 일부 통합학문의 연구자들이 유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 전통을 미래적 지혜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들이 자신의 지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유교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교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진실의 구명에 대해서 분과학적 관점과 논리는 매우 제한된 연구 성과를 얻는 데 그칠 수 있다는 논자의 판단도 하나의 동기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분과학적 지식들을 합하는 것이 유교 이해의 완성도를 높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분과학간의 관점이나 개념의 상호 불일치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관된 원리나 통일된 연구체계에 의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통합학문의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통합학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생물학에 근거하여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지향하는 사회생물학 계열, 둘째 인지과학의 계열에 속하면서 근본적 구성주의를 추구하는 학문 계열, 셋째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알려진 켄 윌버에 의하여 주창되는 통합적 패러다임의 유형이다. 사실 통합학문은 일정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유교 연구에 바람직한 통합학문의 모델을 찾아보는 것은 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2. 유교 연구를 위한 통합학문의 바람직한 기준

과거 조선 시대에 유교가 하나의 지배적 문화로서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듯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떠한 학문 연구라도 그 학문의 사고틀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교의 진실에 대한 공감과 승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학계와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진실 승인의 조건을 고려하여 유교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발너의 구성적 실재론(constructive realism)은 이러한 학문 연구의 속성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이 이론은 각 문화마다 다른 기준에 입각한 진리가 구성된다는 점, 그렇지만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는 그 진리가 실제 시뮬으로써 절대적 진실로서 통용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학철학 또는 문화과학적 이론이다.¹⁾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통합학문에 의한 연구가 현대 사회에서의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될

1) Thomas Slunecko ed., *The Movement of Constructive Realism: A Festschrift for Fritz G. Wallner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his appointment as professor of theory of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Vienna*, Wilhelm Braumueller, 1997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승인이란 유교 연구자 집단에서의 승인이 일차적이겠지만, 비전공자 학자 집단의 승인 나아가서 일반인의 승인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현대인의 삶과 문화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나아가서 삶에 관한 진실의 체계로도 채택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교를 중추적인 문화로 삼아서 나라의 운영과 국민의 교육 및 각종 삶의 방식을 정립해 온 역사가 있고 그에 의한 유교 문명의 맥락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의 식민지, 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문명의 맥락의 중추적 흐름은 유교로부터 서구적 근대 문명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유교가 지배적인 문화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근대화의 과정 이후 유교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견해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유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폐단이나 문제점을 성찰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할 때 문제 해결의 지침을 주는 전통의 지혜라는 정도로 유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유교 문명이 그 실질적 기능은 외면당하거나 부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사 유교적 지혜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교의 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적극적 모색은 많지 않았다.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유교 문화의 수용자들은 유교의 원리 방법 규범들을 현대의 문화적 맥락에 맞도록 다듬어 변형시키거나 혹은 대체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런데 유교의 교육 방법의 타당성을 현대의 공교육이나 가정교육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방법은 대체로 私的인 경험의 일반화였다. 이는 개인 혹은 가정에서의 경험을 유교적 지혜의 효용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객관화에 한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학문적 고찰과 검증에 의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분야

의 분과학적 방법으로 그러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학문의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과연 유교 연구에 어떠한 진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연구자마다 각자의 관심이나 관점에 의하여 통합학문을 선택하고 적용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록 통합학문의 방법론을 사교의 범형으로 삼고자 하더라도 현재 어떠한 유형의 통합학문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학자들의 공동적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3,40년 전에 시작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학제간 협력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통합학문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그것과는 거리를 두면서 기존의 분과학적 연구의 차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통합학문의 연구 방법의 학문적 경험의 축적이 미미하고 그 연구 성과도 현재로는 희소한 것이 현재 한국 학계의 상황이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과거 몇 년 동안 시도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유교적 수양론과 심신관계 이론 및 예교육 효용성에 관한 새로운 전망을 시도하면서 통합학문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실에 있다.²⁾

이 연구들을 통해서 논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첫째 문화적 맥락

2) 유권중 외,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청소년 예교육 모델 개발」, 철학탐구 18, 중앙철학연구소, 2005
유권중 외, 「인지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교육 심성모델 개발(2)」, 동양철학연구 39, 동양철학연구회, 2004
유권중 외, 「한국인의 내면에 형상화된 '마음'-한국인의 마음 모델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 동양철학연구 34, 동양철학연구회, 2003
유권중 외, 「인지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교육 심성모델 개발(1)」,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2.
유권중 외, 「性理學的 心性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교 禮敎育 방법의 효용성 분석」, 동양철학 16, 한국동양철학회, 2002
유권중 외, 「도덕심성모델의 새로운 시도 : 퇴계학, 구성주의, 인공지능」, Journal of the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2,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2002 등

의 차이, 이형적 발상법(은유) 혹은 패러다임의 차이로 인한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넘어서서 타인 혹은 타문화의 진실을 보는 관점이다. 이는 유교의 문화와 학술이 기대고 있는 맥락은 서구 근대문명의 맥락에서 창발한 현대 학문의 맥락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다. 둘째 문화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유교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방법이다. 문화상대주의란 문화 혹은 학문의 진실과 가치가 상호 상대적이라는 관찰에 빠져서 자신에게 절실하고 필수적인 가치나 진실의 모색을 방기하는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학계와 사회에서 진실을 승인하는 방법에 입각하여 유교의 진실을 재구성하고 그것의 사회적 승인을 얻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현대의 학계와 사회에서는 실증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개진된 견해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논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학문적 진실에 대한 실증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리주의 혹은 물질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과적 관계에 입각한 논리적 해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학문으로서 진실성을 승인받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치나 진실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는 통합학문의 방법론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통합학문 자체의 논의 구조가 갖추어야 할 성격이면서 동시에 연구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라고도 생각된다.

3. 생물학 환원주의적 통섭과 유교 연구

통섭(consilience)이란 주제가 요즘 학계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생물학의 주창자이며 『인간본성에 대하여』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통합학문적 개념이다. 윌슨이 consilience라는 명칭을 내세웠고, 국내에서 이를 統攝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윌슨의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

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이다.³⁾ 이 학문 명칭에서 시사하는 윌슨의 학문관은 다음과 같다. 즉 윌슨이 밝혔듯이 통섭이 통일(unification)의 열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⁴⁾ 통섭이란 학문간의 통일로 향해 가는 과도기적 상태의 학문 통합의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생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학문을 대별하고,⁵⁾ 세계가 지식의 통섭을 장려하게끔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21세기 학문의 거대한 조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특히 창조적 예술로 전환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⁶⁾ 반면에 사회과학은 계속해서 세분화되면서 어떤 부분은 생물학으로 편입되거나 생물학의 연장선 위에 있게 될 것이며 그 밖의 부분들은 인문학과 융합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한다.⁷⁾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철학, 역사학, 윤리학, 비교종교학, 미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은 과학에 접근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과학과 융합할 것이라고 예언한다.⁸⁾

비록 그가 인문학이 과학으로 융합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분적이라고 표현하였더라도 그의 진심은 궁극적으로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 즉 모르는 것에 관한 숙고는 그 통치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 목표 중 하나는 철학을 과학으로 최대한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다.”⁹⁾ 그는 통섭에 대한 믿음(내지 희망)은 자연과학의 근간이고, 그 통섭이란 곧 학문간의 개념적 통일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⁰⁾ 그가 특히 자연과학을 통섭의 주축으로 삼는 이유는 그가 생물학자라는 점이 가장 유력하

3)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 장대익 옮김, 『통섭』 (주)사이언스북스, 2005, 옮긴이 서문 13쪽
4) 위의 책, 40쪽
5) 위의 책, 44쪽
6) 위의 책, 45쪽
7) 위와 같은 곳
8) 위와 같은 곳
9) 위의 책, 44쪽
10) 위의 책, 43쪽

지만, 나름대로 자연과학이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지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가고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반면에 철학과 같은 인문학의 지식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로부터 유리된 관념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의 인식도 보인다. 어쨌든 그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인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거나 전혀 없다는 현실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¹¹⁾

그리고 그는 통일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통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균형잡힌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¹²⁾ 그리고 균형잡힌 관점을 얻는 방법은 분과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과들간의 통섭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¹³⁾ 이로써 본다면, 그의 통섭이란 분과학의 지식들의 총합만은 아니다. 즉 분과학문들의 지식을 어떠한 원칙이나 근본 위에 융통시킴으로써 분과적 지식들을 일관하는 것이 통섭인 것이다. 그 통섭의 원칙 또는 근본은 자연과학적 실증적 지식 내지 그것의 연구 방법인 것이다. 그는 계몽시대의 프란시스 베이컨의 업적과 학문 방법을 통섭의 선구적 형태로서 중시하면서, 창조적인 학문의 가치는 생산성(seminality)에 있다고 규정하고, 과학이 계몽 운동의 엔진으로서 이러한 생산성을 꾸준히 발휘하면서 인간 지식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는 믿는다.

특히 앞에서 논자가 제시했던 유교 연구의 주제는 마음 내지 정신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데, 윌슨은 저서 『통섭』에서 ‘마음’이라는 장을 설정하고 많은 논의를 했다. “지식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정신 과정이 물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이 자연과학에 잘 부합한다는 가설에 근거해 있다.”¹⁴⁾ 정신 또는 마음이란 물리적 기초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그의 견해는 1990년대까지 진행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내지 유전자 지식의 근거 위에 서있다. 그는 마

11) 위의 책, 47쪽
12) 위와 같은 곳
13) 위와 같은 곳
14) 위의 책, 183쪽

음의 본질적 속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추측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식 경험과 잠재 의식 경험의 흐름’이 마음이라고 정의한다.¹⁵⁾ 또 그 마음의 뿌리에는 감각 인상의 암호화된 표상과 기억 그리고 감각 인상의 상상이 있고, 마음을 구성하는 정보는 방향과 크기를 지시하는 벡터 암호를 통해서 저장되거나 쉽게 검출된다고 그는 설명한다.¹⁶⁾ 또 의식이란 그러한 암호화 네트워크가 병렬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정의한다.¹⁷⁾ 그는 대니얼 데닛의 용어를 빌려 “데카르트의 극장과 같은 것은 없다”고 표현하면서¹⁸⁾ 내면에는 모든 내면적 활동을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의식 중추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닌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전뇌의 구석구석--대뇌피질에서부터 시상, 편도체 그리고 해마와 같은 특수화된 인지 중추에 이르기까지--에서 벌어지는 신경 활동의 얽힘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¹⁹⁾

그는 바로 이러한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과학과 예술의 정신활동의 동질성을 설명하는 데, 바로 이 설명이 통섭이란 자연과학적 지식의 기초 위에서야 가능하다는 믿음의 또 다른 근거인 것이다. 즉 “과학과 예술의 공통 속성은 정보의 전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전달 양식이 논리적으로는 동등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²⁰⁾ 이 논리적으로 동등한 양식이 바로 신경망의 작용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양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이 관점에서 의하여 마음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²¹⁾ 자아 역시 뇌로부터

15) 위의 책, 204쪽

16) 위와 같은 곳

17) 위와 같은 곳

18) 위의 책, 205쪽

19) 위와 같은 곳

20) 위의 책, 217쪽

21) 위의 책, 219쪽. 그러나 221~222쪽에서는 인간 사고에 대한 단순한 결정론은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사고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 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하기도 한다. 이 설명에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²²⁾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영혼 같은 것도 신경회로와 분자적 과정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²³⁾

그리고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와 문화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유전자는 인지 발달의 신경 회로와 규칙적인 후성규칙을 만들어 내고, 개별 마음은 그 규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⁴⁾ 그는 비록 문화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후성 규칙이 주는 영향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유전자에 의한 후성 규칙의 강조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문화간의 차이와 상대적 관계는 피상적인 것임에 불과하다는 견해로 귀결된다.

그는 저서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계몽사상의 유산으로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앎과 이해 그리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계승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그는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낡은 부조리적 실존주의가 아닌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통합된 지식만이 정확한 예견과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존주의의 시대로 진입한다고 진단한다.²⁵⁾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윤리가 모든 것이라는 근본 원리를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월슨의 통섭이 담고 있는 특징은 서구의 계몽주의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여 인간의 앎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는 점,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을 통섭의 주축으로 삼는 점, 프란시스 베이컨을 모델로 귀납법적 추론에 입각한 물질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삼아 학문간의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 나아가서 생물학 내지는 물질과학의 지식을 근거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윤리적 지침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

따라 그는 유기체의 시공간에서,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자아에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서 마음은 자유 의지를 가진다고 말한다.

22) 위와 같은 곳

23) 위의 책, 220쪽

24) 위의 책, 232쪽

25) 위의 책, 507쪽

26) 위와 같은 곳

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점이 특징이다.

윌슨의 통섭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통섭의 기본적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사회적 승인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윌슨의 저서 『통섭』은 그의 해박한 지식을 근거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의 지침을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섭의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살핀 통섭의 원칙이나 방향, 그리고 목적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키면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물학적 지식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라는 윌슨의 관점은 생물학뿐 아니라 인지과학적 성과까지도 근거로 삼고 있어서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타당한 근거를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지식을 토대로 지향하는 바가 얇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지식이 문화적 지식의 유용성을 능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주고 있다. 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교 연구의 차원은 적어도 문화현상으로서의 유교이며, 문화현상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들로 체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대의 생물학적 지식이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의 물질적 근거에 대해 많은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고, 도덕적 선행을 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삶에 대한 모종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안이 없는 듯하다. 문화적 상징, 인간의 마음에 관한 다양한 유교적 구성물들은 유전자의 암호 해독이나 신경망의 작용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특히 마음을 통제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실질적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을 개발한 유교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윌슨의 통섭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윌슨의 통섭의 방법에는 지식의 통섭은 있으나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노력에는 한계가 보인다. 진리를 물질의 차원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인간의 의식과 정신이 빚어내는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시각을 제시하거나 별다른 진전된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 비록 윌슨이 윤리학을 귀결점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사실에 관한 지식의 기반위에서 제시된 것인데,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치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피터 싱어의 지적은, 윌슨의 통섭의 지향점이 가치와 의미의 영역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⁷⁾ 또 윌슨의 생물학 환원적 통섭은 문화 간의 차이를 생물학적 동질성으로 환원시키고 몽땅그리기 때문에 이질적 문화간 융섭과 조화를 위한 더욱 포괄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이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4. 근본적 구성주의와 유교 연구

근본적 구성주의는 어떤 확정된 유형의 통합학문이라기 보다는 매우 상이한 사유의 전통이 만나면서 상이한 분과학문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생각들이 어울리는 담론의 체계라고 그 성격이 규정된다.²⁸⁾ 이 담론은 제 2계 사이버네틱스(second order cybernetics) 및 생물학, 심리학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학자와 신경생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와 신경정신과 의사, 사회학자와 경영학자, 언어학자와 문예학자, 법학자, 인류학자와 예술이론가들이 그들의 분과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구상하고 점검해옴으로써 인간의 심리 문화 예술 및 사회 등의 분야에 두루 걸친 담론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분야들간의 담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공동의

27)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사회생물학과 윤리』, 인간사랑, 1999, 139~152쪽 참조.

28) 지크프리트 J. 슈미트 편저 박여성 옮김, 『구성주의』, 까치, 1995, 7쪽

학문 방향은 인식의 관심을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인식의 과정 및 그런 과정의 구체적인 경험적 조건들로 바꾸는 것이다. 이 때 의미를 구성하는 조작으로서의 관찰하기(지각하기와 인식하기)가 관심의 초점이 되며, 이를 탐구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가 제시된다. 첫째, 오직 폐쇄된 체계들만이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관찰하기는 기만할 수 없는 것이고, 관찰하기는 관찰자의 구성이다.³⁰⁾ 여기서 말하는 구성이란 어떤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 대한 현실설계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구성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 사는 사회화된 개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인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³¹⁾ 이들의 담론에서 주목해야 할 주장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자신의 신경활동에 근거하여 오직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식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세계 또는 이성이 진리 여부를 따지는 모든 문제들에서 ‘결정적인 심판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전통적인 경험론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변되어야 한다: 그 심판관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세계도 이성도 아니며, 해당하는 경우들을 결정하는 그때 그때의 집단지식일 뿐이다.

--지각하기, 인식하기 및 행위하는 과정 속에서 관찰하는 체계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경험, 지식, 커뮤니케이션, 규범, 공감(상호공인) 등에 결부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진화과정과 결부되어) 현실로 간주하여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언어 및 문화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바로 우리가 경험상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생태학적으로 유용한 (생존에 유익한) 지식이다.³²⁾

이러한 주제에 관한 논의들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움베르토 마투

29) 위의 책, 5쪽

30) 위와 같은 곳

31) 위와 같은 곳

32) 위의 책, 9~11쪽

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레라의 공동 저술인 『인식의 나무』*The Tree of Knowledge* 마지막 장의 결론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유교 연구의 통합학문에 의한 연구 방법과 관련된 시사를 하고 있다.

“삶의 삶은 우리들을 엮어맨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안다는 것을 알면, 더는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이들 앞에서 마치 우리들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한 모든 것에는 (우리들이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윤리가 담겨 있다. 이 윤리의 준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것은 인간의 반성에서 출발하는 윤리이며, 또 ‘사람다움의 본질인 반성’ 핵심적인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중심으로 삼는 윤리’이다. 우리들의 세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내놓은 세계임을 알게 되면, 다른 이들과 다투더라도 ‘그들과 계속 공존하고자 하는 한’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을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고집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과 공존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확실한 것 또한 (그것이 아무리 마땅찮게 보인다 해도) ‘우리들 것만큼 정당하고 타당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확실함이 그렇듯이 다른 이들의 확실함 또한 한 존재영역에서(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매력없게 보인다 해도) 그들이 보존한 구조접속³³⁾의 표현이다. 따라서 공존하려면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 곧 두 쪽이 만나 공동의 한 세계를 내놓을 존재영역을 찾아야 한다. 곧 두 쪽이 만나 공공의 한 세계를 내놓을 존재영역을 찾아야 한다. 다툼이란 언제나 상호부정이다. 다툼은 두 쪽이 서로 자기 것을 ‘확신’하는 한, 다툼이 생긴 영역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다툼을 극복하려면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야만 한

33) 움베르토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최호영 옮김, 『인식의 나무: 인식 활동의 생물학적 뿌리』, 자작나무, 1995, 83쪽. 이에 의하면 각각의 개체는 자신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타 개체와 접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개체는 상호 섭동작용(perturbation)을 하면서 구조에 변화를 ‘유발’할 뿐 결정하거나 명령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서 각 개체는 자신의 구조를 해체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구조의 변화를 추구해간다. 이것이 오랜 동안 지속된 것이 생물의 역사이며, 인간의 문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다. 이 삶에 대한 삶이야말로 사람다움에 바탕을 둔 모든 윤리의 사회적 명령이다.”³⁴⁾

이 구성주의 담론에서 유교 연구와 관련되어 긍정적 전망을 주는 것은 바로 생물학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깨달음에 근거하는 공존의 윤리를 제안하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異文化간의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적 삶의 당위라고 제안하는 구성주의적 입장이며, 이는 상대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또 자신만의 절대성도 내세우지 않는 인류 공동의 문화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전망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레라는 윤리의 진정한 상태 혹은 궁극적 상태에 대해서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그는 강연집 『윤리의 노하우』*Ethical Know-how*³⁵⁾에서 현대의 윤리학의 논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그것은 이미 정해진 원칙에 바탕을 둔 초연하고 비판적인 도덕(morality)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그 자체가 옳이라고 인정되는 전통에 기대어서 실천적이고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다."³⁶⁾ 그리고 그는 후자의 관점에 동조하면서, 동양의 세 가지 지혜로운 전통들, 즉 유교, 도가, 불교에서 발원한 주제인 ‘무엇이 되는 것이 옳인가’에 관해서 집적된 사고의 거대한 체계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되었음을 밝혔다.³⁷⁾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동양의 전통에서 시사된 지혜, 혹은 현자에게서 윤리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정의하고자 노력한다.

다음에서 나는 이들 비서구인의 저작들을 거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경험에 관한 서구의 견해들과 대조적인 견해들을 취하도록 한다. 이와 가장 근접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옳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

34) 위의 책, 251~252쪽

35) Francisco Varela,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99

36) *Ibid.*, p.3

37) *Ibid.*

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현자(a wise man)를 들 수 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각과 행위의 즉각성(immediacy)³⁸⁾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윤리적 행위를 연구하는 일반적 방법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이다.³⁹⁾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일반적 방법이란 바로 서양의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윤리학적 연구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어느 한 가지 행위에 작용한 의도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판단들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끝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방법이란 동양적 지혜에서 시사받은 것인데, 그는 양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즉 서양적 방법은 이성의 판단과 추론의 능력을 요구하는 윤리의 know-what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동양적 지혜는 체화된 마음에 근거하여 반사적으로(reflexive) 일어나는 윤리의 know-how를 기르는 방법이라고 구별하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그는 앞서 소개한 탐구의 내용에 바탕을 두면서 윤리적 행위의 본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그의 강연 내용은 다음 두 가지 물음을 풀어가는데 쪽을 향하고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윤리적 노하우를 대단히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윤리적 노하우는 인간에게서 발전되고 양성되는가? 그의 강연은 이에 답하면서 주로 인지과학의 성과, 인공지능의 이론 등을 결부지어 설명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시사되었듯이 동양의 현자의 인격 성취와 관련된 방법과 그 경지를 그 강연에서 자문자답하는 근거이자 윤리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제2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맹자의 덕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8)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이미 그것에 대한 반응의 방식을 체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행위를 유보하고 그 사이에 사고하고 음미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39) *Ibid.*, p.4

40) *Ibid.*, pp.17~19

“덕을 사이비 덕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맹자는 4 가지의 인간 행위의 종류를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진실한 윤리적 행위일 뿐이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유사한 것이거나 완전한 사이비이다. 이 네 가지 행위는 (1)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행위들, (2) 습관화된 반응의 유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3) 규칙들을 추종하는 데서 일어나는 행위들, (4) 확장(推)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다. 知에 의하기 보다는 습관화된 반응의 유형으로부터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황들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데 실패한다. 규칙들에 집착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기술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과 같다. 맹자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러한 규칙들은 항상 그 사람(agent)의 외부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인데, 그것들은 적어도 몇 가지 방식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과는 항상 불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볼 때, 오랜 과정동안 행한 修身의 결과로서 지니게 된 성향을 행동하는 바로 순간마다 그대로 발휘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仁和 義를 통해서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행위 속에 仁和 義를 투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람은 윤리를 演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전문가가 그의 노하우를 구현하는 것처럼 仁和 義를 구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賢者는 그 자신이 윤리적인데, 혹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의 행위들은 그의 내적인 본성이 개별적인 상황에 응하여 발생시키는 경향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윤리적인 행동은 단순한 습관에서 발출하는 것은 아니며, 또는 어떠한 표준형들이나 규칙들을 맹종하는 것으로부터 발출하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숙달된 사람은 확장된 경향들을 따라서 행위하게 되는 것이지, 교훈을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논자 강조)”⁴¹⁾

바레라의 이 사고는 동양의 전통적 지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41) *Ibid.*, pp.30~31

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혜들이 닦아놓은 인간의 발달과 성취에 관한 진실을 생물학적 내지 인지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근본적 구성주의의 전체 담론이나 참여자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 담론의 구조상 동양의 문화 전통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보여준다는 점, 바레라의 강연에서 보이듯이 유교 내지 불교의 진실을 서구적 지적 전통을 넘어선 인간 이해와 성취에 관한 진실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교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방법론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식의 상대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상대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소통과 이해의 윤리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점,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으로부터 인간 교육과 인격 발달의 방법론적 적합성을 발견하고 있는 점 등은 유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 전통에 접근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전망을 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 담론은 인간의 인지체계의 자기구성으로부터 사회 체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서구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의 전통적 지식 추구의 방법 가운데 칸트, 비코 등에 연원을 둔 구성주의적 사고를 더욱 철저히 발전시켜 온 것이지만, 동시에 그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관점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이 서구의 인문학적 관점에 의한 연구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유교의 특징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5. 켄 윌버의 통합 패러다임과 유교 연구

켄 윌버의 학문 여정에 대해서 국내에는 자세하게 소개된 것은 없지만, 최근 번역된 그의 저서에는 그의 학문 이력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어 있다. 이외에는 삼발라 출판사에서 출판한 켄 윌버 저술의 요점을

뭉은 독본이 있어서 그의 학문의 요체를 알기 쉽게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학문 이력을 소개한 글로부터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켄 윌버는 초개인(transpersonal) 연구와 통합학문 분야의 이론가로 알려진 학자이다. 그는 듀크 대학 시절에 화학을 전공했으나 老子의 『道德經』을 읽고 논리와 과학을 넘어서서 세상과 자아를 보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었다고 한다.⁴²⁾ 그가 섭렵한 내용은 생화학, 생물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서양 심리학, 철학, 동서양의 영적 전통에 관한 서적들에 걸쳐서 다양하다. 그리고 그의 저술들은 개인 발달에 관한 통합적 모형, 인식론과 과학철학, 정신병리 현상과 심리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990년대 중반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한 저서 『성, 생태, 영성』*Sex, Ecology, Spirituality: The Spirit of Evolution*(1995)에서 이전에 다루었던 기본적인 주제들 뿐 아니라 체계이론, 진화이론, 페미니즘, 생태학적 사상, 근대/탈근대에 관한 철학적 작업을 망라하였다.⁴³⁾ 그리고 『정신의 눈』*The Eye of Spirit*(1997)에서는 심리학, 철학, 인지과학과 의식연구, 인류학, 예술, 문학이론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을 탐색하였고, 『감각과 영혼의 만남』*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Integrating Science and Religion*(1998)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근본문제를 ‘과학과 종교의 통합’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⁴⁴⁾ 그리고 1983년 처음 출간된 이후 2001년 개정 3판으로 출판된 『아이 투 아이』*Eye to Eye: The quest for the new paradigm*은 초기의 카프라와 그 아류들이 마치 첨단 물리학(양자역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성을 밝혀 낸 듯 주장하던 소위 신과학, 홀로그래픽 패러다임의 부분성과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통합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42)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대원출판, 2004, 480쪽

43) 위의 책, 482쪽

44) 위의 책, 482~483쪽

『감각과 영혼의 만남』에서 그는 물질과학을 우위에 놓고 철학 종교를 쇠퇴시킨 근대성, 이를 극복하려고 나온 낭만주의, 관념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관점과 방법을 모두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근대성은 과학, 도덕, 예술을 차별화하면서 특히 과학적 가치를 진실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만들고, 여타의 영역들의 가치를 위축시키거나 과학에 종속시켜 버렸다. 즉 물질적 가치와 물질과학적 지식이 여타의 가치와 지식을 무용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근대 이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리고 근대성에 반발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면서 출현한 학문사조들 즉 낭만주의, 관념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이러한 비판과 극복에서 성과가 없었음을 그는 비판하고 있다. 그가 통합적 학문을 스스로 구성하였던 동기는 바로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버의 통합학문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이론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들이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를 지니는 까닭에 전체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패러다임의 중요 구조와 그와 관련된 그의 논리적 구조의 대강을 언급하고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월버가 제시하는 통합 패러다임(integral paradigm)의 구조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물리과학,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철학과 심리학, ‘초월적 웨어’라고 할 수 있는 신비적-영적 종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지식탐구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그는 근본적 구성주의자들처럼 실재의 인지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 차원 각각의 영역의 실재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실재한다고 하는 영역은 조대(*gross*, 공간, 시간, 육신 및 물질), 정묘(*subtle*, 심적인 것과 생기 있는 것), 시원(*causal*, 초월적이며 관조적인 것)로 구분된다.⁴⁶⁾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그것을 관찰하는 인간의 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

45) 위의 책, 59쪽

46) 위의 책, 62쪽

대에 대해서 육신의 눈, 달리 말하면 감각적 경험의 눈이고, 정묘에 대해서 이성의 눈 또는 마음의 눈, 시원에 대해서 관조의 눈이라고 그는 설명한다.⁴⁷⁾ 바로 이 세 가지 영역과 것을 보는 눈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데서 그의 패러다임의 특징이 드러난다.

즉 ‘심안은 육안으로 환원될 수 없다’, ‘정신장 $mental\ field$ 은 감각장 $sensory\ field$ 을 포함하지만 또한 초월해 있다’, ‘마음의 눈은 육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육신의 눈보다 훨씬 솟아올라 있다’는 그의 주장들은 육신의 감각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를 인정함은 물론, 나아가서 관념의 세계가 감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마음의 눈은 논리작용을 통해 감각운동적 대상을 내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적인 운동계열을 초월해 있다. 마음의 눈은 의미작용을 통해 육신의 본능적이며 충동적인 해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단지 유기체의 동물적인 인간 이하의 측면들을 초월해 있다.”⁴⁸⁾ 그리고 이성의 눈이 육신의 눈에 그러한 것처럼 관조의 눈은 이성의 눈에 그러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관조는 이성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눈이 초경험적이라면, 관조의 눈은 초합리적이며 초논리적이고 초정신적이다.⁴⁹⁾ 이 세 차원의 세계와 그것을 보는 안목들 사이의 관계를 그는 아더 콰슬러의 개념을 차용해와서 홀론 $holon$ 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위계질서를 홀라키 $holarchy$ 라고 표현한다.⁵⁰⁾ 이 홀론의 의미는 아래를 보면 전체이고 위를 보면 부분인 하나의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홀론의 위계질서가 바로 홀라키이므로 홀라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운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일성 $holism$ 이라고 그는 슈무츠의 개념을 원용하여 표현한다.⁵¹⁾ 이 전일성이란 ‘끝없이 상위의 통일성으로 내모는 충동’이라고 그

47) 위의 책, 63쪽

48) 위의 책, 64쪽

49) 위의 책, 65~66쪽

50) 켈 월버 지음 조효남 옮김, 『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출판부, 2000, 118쪽

51) 켈 월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는 표현한다. 그는 모든 곳에서 더 상위의 전체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전 일적인 진화는 인간 정신 속에서 발달이나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우주적 진화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한다.⁵²⁾ 이러한 위계질서와 전일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대발달심리학의 연구결과를 깊이 수용한 것이지만, 단지 그의 견해가 심리학적 지식의 반영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전일성의 운동 방향의 궁극을 최상위의 통일성의 단계로서 영혼에서 드러나는 통일성을 꼽는다.

그에 의하면 저정묘 영역에서 고정묘 영역을 거치면서 초월과 통합의 과정이 지속해 감에 따라 완전한 통일성 그 자체로 이끄는 더 고등한 통합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시원 영역인데 여기에도 저시원과 고시원을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정묘 영역의 저단계에서 고단계로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저시원, 고시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그는 한두교, 대승 불교, 기독교 신비주의, 베단타, 위파사나 불교 등에서 설정하는 단계들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각종교에서 설정한 단계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얻었거나 수행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실제의 세계임을 그는 강조한다. 그는 최종적인 경지를 『반야심경』의 色卽是空, 즉 비범한 것과 평범한 것, 초자연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그 지점에서 정확히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 되는 경지, 尋牛圖의 열 번째 그림의 경지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울타리 문을 닫고 홀로 앉으니 천성도 모른다. 그는 前賢의 途轍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표주박을 차고 시장에 들어가 어슬렁거리다 지팡이에 기대서 집으로 돌아온다.”⁵³⁾ 그는 이 단계를 眞如로서의 의식이며 ‘완전한 초월’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로부터의 초월이 아니라 세계로서의 최종적인 초월로 해방된다고 설명한다.⁵⁴⁾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의식의 작용도 이전 단계에서는 발달의 각 단

대원출판, 2004, 168쪽

52) 위와 같은 곳

53) 위의 책, 188쪽

54) 위와 같은 곳

계에 대응하여 그것에 대한 인식의 활동을 하던 것으로부터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들, 모든 층을 통합하고 상호침투하면서 오직 전 세계과정*entire World Process*으로서 작용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밖에도 그는 진리의 세계를 진리의 4象限*four quadrants*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⁵⁾ 그는 ‘존재의 대연쇄’⁵⁶⁾의 각 수준에는 내부와 외부가 있고, 개체와 집합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관련된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이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도 있어야 하는 것임을 그는 주장하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각 상한마다 상위로 나아가는 진화의 당위적 과정을 설정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간의 학문과 문화의 진화 혹은 존재 자체의 진화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그의 이 주장이나 그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의 방법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그는 근대에 들어와 물질과학이 진실의 기준이 되고, 그 방법론이 진실을 낳는 방법론으로 통용되면서 ‘철학까지도 과학적으로 해야만’ 진리로 승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진실 추구의 방법 혹은 진실 승인의 방법처럼 객관화된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다만 물리과학에서의 방법이 대상에 대한 관찰이라면, 철학과 심리학은 대화를 통한 간주관적 담론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초월적 영역의 종교에서는 禪수행의 성취를 스승과 승단으로부터 공인받는 방식이 있듯이 각각의 영역과 차원에서 각각의 방법과 기준이 있음을 그는 중시한다.⁵⁸⁾

월버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일은 매우 벅찬 일이지만, 여기

55) Ken Wilber, *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Boston & London, Shambala 2000, p. 60

56) 이는 원래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Cambridge, Massachusette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의 관점을 계승한 데서 비롯된 관념이다.

57) Ken Wilber, *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Boston & London, Shambala 2000, p. 60

58) 켄 월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대원출판, 2004, 120~138쪽

서는 유교 연구와 관련하여 본다면, 몇 가지 긍정적 전망을 주는 점이 발견된다. 우선 그의 홀라키적 체계는 물질과학적 지식보다는 정신적 가치나 의미, 또는 도덕적 성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유교의 지향성을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는 관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홀라키적 체계는 유교라는 문화와 그 지적 창조물들을 어디다 위치시켜야 옳은가 하는 의문을 과제로 주고 있다. 아울러 그가 과학적 지식의 엄밀성처럼 종교의 진실 성취를 검증하는 방법의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적 진실의 객관화를 피하는 것은 유교 연구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즉 유교의 효용을 인격 성취라든가 도덕의 체현 등에서 구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의 연구에서 이의 성취를 승인하는 객관화된 기준을 모색하는 것은 찾아보기 드물다. 그리고 월버의 진리의 4상한이라든가 혹은 조대, 정묘, 시원의 홀론적 위계를 세우면서 전일성을 강조하는 점은 인간의 문화와 학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역시 오늘날의 유교 연구도 어떠한 방향을 정하고 그쪽의 성취를 향해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는 까닭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 언

유교 연구 혹은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은 꼭 어느 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전통 문화, 혹은 사상으로서의 유교가 현대인의 삶에 줄 수 있는 유용성을 찾고자 한다면, 유교는 물리적 관찰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담론을 통해서 그 의미와 상징의 세계를 재해석하고 간주관적 진실의 세계를 구성하여 나가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유교를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패러다임이 유교에 대한 담론의 차원과 구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살핀

통합학문들은 각각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패러다임이 지금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 그것도 논자의 주관에 따라서 추구했던 유교 연구의 방식이나 관심사에 비추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점을 추론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이들 통합학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추론을 한 데 지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유교 연구에 필요한 방법이나 관점들을 이들 통합학문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근본적 구성주의의 관점이나 켄 윌버의 통합적 패러다임은 표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양자 공히 궁극적으로는 근대 이후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 및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취해온 지적 전통 특히 철학과 윤리,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로부터 향후 인류가 취해야 할 개인적 집단적 삶(또는 행위)의 방향과 방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인류의 지혜로운 전통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전통의 진실성을 최선의 학문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고 그 위대한 전통들의 맥락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제시하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아닐 수 없다. 즉 이들은 인류의 문화유산, 특히 정신적 지혜의 여러 갈래의 가닥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지혜의 전통의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대하면서 유교라는 문화 전통에 대한 연구도 실은 이러한 조류에 참여하는 것이 곧 유교의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꼭 유교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인류의 다양한 지혜의 전통과 유교가 어울린 새로운 지혜의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A Perspective on the Study of Confucian
Culture and Tradition from the Viewpoints of
Integrated Studies**

Yoo, Kwon Jong

This paper, for a purpose to explain features and virtue of Confucianism with the methodologies of kinds of integrated studies, introduces fields and methods of integrated studies and inquire what perspective the integrated studies can give to studies of Confucianism.

Three models of integrated studies were chosen and their viewpoints, methodologies and theoretical hypotheses were observed. The first is Edward Wilson's socio-biology which has been trying to make a consilience of natural sciences and humane studies, the second radical constructivism which originated from a kind of cognitive sciences, and the third a kind of integrated paradigm insisted by Ken Wilber.

Inquisition about Wilson's consilience revealed as follow: the ultimate head of his consilience for unification of all kinds of knowledge based on the natural scientific knowledge is real nature of consilience. His conception of consilience has confidence in human intellectual capacity in the same way with Enlightenment. It gives the main role of the unification to natural science rather than to the Humanities and it takes a matter of course that guiding ethical principles must be abstracted from biology or other natural sciences. However such a way of consilience could be thought negative to the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Things about radical constructivism were studied as follow. Scholars who

have joined the discourse of radical constructivism and their fields of research were mentioned. According to their conclusion, human cognition must be a process and expression of its self construction, and knowledge of knowledge is just knowledge of limits of human being itself and becomes basis of ethics. The members of the constructivism have suggested ethics of coexistence based on the realization of biological and social construction, and also insisted that the essence of ethical practice was not know-what but know-how of ethics. Their discourses ranging from about self-construction of cognitive system to construction of social system have been produced as a result of developing thoroughly the context of constructive thinking rooted in thinking of Kant and Vico rather than many context of seeking knowledge methods in the Western modern era. In addition they developed a new and positive viewpoint to estimate the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s, and therefore radical constructivism can be anticipated to establish a new viewpoint to recognize the real features of Confucianism that have not been explained well from the viewpoints of modern humanities of the West.

About Ken Wilber's integrated paradigm, the structure of the paradigm was researched. Three dimensions of cognition and three eyes correspondent to the dimensions, his points ranging from holon to system of holarchy he devised, four quadrants of truth, the totality, etc., are details of his paradigm. It is sure that his ideas can give some positive perspective to study Confucianism. First, the system of holarchy is very inclusive because it gives a proper place of knowledge not only to natural science but also to humanities or religion. So we must discuss how to decide proper places of Confucian knowledge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he insisted that objectification of religious truth is necessarily pursued as strict as the objectification of natural scientific knowledge. His insist as like this must be applied to research of Confucianism.

Both of the latter two, even though each opinion is not the same, seem to suggest radical solution of problems especially about mankind occurred in the modern civiliz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the same in attitudes or methods of acknowledgement of intellectual traditions, for example philosophy, ethics and religions on the both sides of the globe, they are the same that they established directions and styles that mankind have to adopt as their desirable lives in the future just from the traditions. Their ideas must be a new creation of traditions. Faced to these new currents of integrated studies, research of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has to be joined to these currents and therefore they will become methods to make Confucian wisdom more affluen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human lives. If there is no reason why we have to stick to Confucianism itself, then construction of new wisdoms that fuses wisdom of Confucianism and other great wisdoms in a context will be allowed.

Key Words: integrated studies, Edward Wilson, consilience, cognitive science, radical constructivism, Ken Wilber, integrated paradigm

유권중 e-mail : ykj111@cau.ac.kr

참고문헌

- Thomas Slunecko ed., *The Movement of Constructive Realism: A Festschrift for Fritz G. Wallner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his appointment as professor of theory of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Vienna*, Wilhelm Braumueller, 1997
-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 장대익 옮김, 『통섭』 (주)사이언스북스, 2005
-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사회생물학과 윤리』, 인간사랑, 1999
- 지크프리트 J. 슈미트 편저 박여성 옮김, 『구성주의』, 까치, 1995
- 움베르토 마투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최호영 옮김, 『인식의 나무: 인식활동의 생물학적 뿌리』, 자작나무, 1995
- Francisco Varela,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99

-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대원출판, 2004
- 켄 윌버 지음 조효남 옮김, 『감각과 영혼의 만남』, 범양사출판부, 2000
- Ken Wilber, *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Boston &
London, Shambala 2000
- Arthur O. Lovejoy, *The Great Chain of Being*, Cambridge, Massachusette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